

정신지체 장애아동의 관계효능감 발달을 위한 반(反)분리교육의 중요성

정은*

영남대학교

《요 약》

인간의 삶은 부단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성취되며 따라서 언어적 기술을 포함하여 관계맺음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기술들은 모든 교육생활 영역, 특히 정신지체 장애아동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기술들의 기초가 되는 관계효능감을 공간이론으로서 애착이론에 비추어 조망해 보고 또 철학적으로는 E. Levinas의 '향유' 개념에 근거하여 논의해 보았다. 연구결과 관계효능감 발달은 기본적으로 애착발달에 토대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행복(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의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정신지체인(아동)들에게서 볼 수 있는 관계에 대한 비능동성은 정신지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이제껏 이들이 겪어온 타인들과의 병리적 관계 경험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신지체 장애아동(과)의 관계효능감 발달을 위해서, 즉 정신지체 장애아동, 비정신지체 장애아동 모두에게 꼭 필요한 교육형식은 반(反)분리교육(완전통합)이며 내용적으로는 그 공간 속에서 접하게 되는 만남 대상 자체를 상호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의식, 즉 "향유"적 관점이 필요하다.

주제어 : 관계효능감, 공간이론, 향유, 아동학대, 반(反)분리교육

1. 문제의 제기

인간의 삶은 부단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성취된다. 그래서 언어적 기술을 포함하여 관계맺음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기술들은 모든 교육생활 영역에서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고 특수교육 영역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정신지체 장애아동에게 있어서 타인들을 알아가고 더불어 다양한 사회문화적 규범들을 익히는 일은 그 어느 영역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최근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더욱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또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그 중에서도 관계효능감과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박영신, 김의철, 광금주, 1998; 박영신 외, 1999)에서도 역시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관계맺음에 기초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이 특수교육뿐

* 교신저자(cpe21@hanmail.net)

아니라 제반 교육현장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인생의 다양한 장면들 속에서 자아를 개발하고 또 실현시켜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자기효능감은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Bandura, 2003: 28). 달리 말해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기술의 양적인 면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건 하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주어진 어떤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관련이 있다(같은 책: 106). 관계효능감은 이러한 관점에서 간단히, 인간관계(형성)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관계효능감이라는 것은 무조건 내지 단순히 관계를 잘(쉽게) 시작하고 만들어나가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본문에서 깊이 있게 다루게 되겠지만 관계효능감이란 단순한 효능신념 이상의 의미 즉,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에서, 그 사람 자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E. Levinas의 ‘향유’ 개념(변순용, 2000: 50; 김연숙, 2002: 69-93)으로 조망될 필요가 있다.

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적 감성은 무엇보다도 양육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그런데 일찍이 Bowlby가 염려했듯이, 현대 사회는 최적이지 아닌 아동 양육체계, 많은 경우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방식(예를 들어 정서적 신체적 학대, 물질적 정신적 방임 등)이 일정정도 당연하게 즉 어쩔 수 없는 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Holmes, 2005: 309-311; Miller, 2005; 이호철, 2001). - 예를 들어 Bowlby는 이와 관련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불필요하게 떨어져 지내는 데 대한 그의 고통과 분노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자로 하여금 산부인과 병동에서 수행해 왔던 놀라운 관행, 즉 태어나자마자 즉시 엄마와 아기를 떼어놓는 일에 대해 잠시동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이러한 행위가 모자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방법인지 독자 스스로 묻도록 하자. 서구 사회의 이러한 미친 행위를 소위 덜 발달한 사회에서 모방하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란다”(Holmes, 2005: 82, 재인용).

즉 Bowlby는 아동양육에 있어서 사회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묻는 것이다. - 형편이 이렇다보니 현대사회 아이들은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형성 및 유지와 같이 서로의 전인적 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초능력들을 가정 외적 영역에서 보완할 것을 과거에 비해 더욱더 요구받게 된다. 공교육 영역은 이러한 맥락에서 그러한 능력을 키우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는 중요한 의무적 위치를 점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반교육, 특수교육 모두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럼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의 교육생활 문화로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이 분리되어 있는 공교육 현실을 잠시 성찰해 보자.

문화는 흔히 ‘하나의 인간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나 신념’ 또는 ‘삶의 디자인’이라 정의되지만, 한경구(2004: 29-30)가 지적하듯이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오히려 사회 구성원들 간에 ‘공유된 무관심’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동 사회 구성원들을 포함하여 세상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시각의 발달 과정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문화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처한 사회 문화의 기본적인 가치나 여러 특질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그래서 의문을 품지도 않고 질문도 하지 않게 되는 것(즉 공유된 무관심)은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여기서 격리된 특수교육의 현실을 들 수 있는데, 즉 분리특수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유된 무관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사회현실이다(김병하, 2000; 정은, 2002; Oliver, 2006 참고)

앞서 언급했지만 인간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동 사회 구성원으로서 타자가 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형성 기회, 나아가 각자의 관계효능감은 삶의 필수적인 요인이며 국가와 사회, 특히 공교육 영역은 이에 대해 책임감 있게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통합교육 논의가 활발하고 실천 또한 다소 진전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특수교육은 여전히 분리교육체제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많은 장애아동들이 통합교육이 가능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혹은 그와는 무관하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개별화교육 중심의 분리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냉대와 제도적으로 열악한 양육조건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들의 일상을 더욱 쉽게 파행적으로 이끈다(유현경, 2004; 신영미, 정창교, 2001; 정창교, 2004; Jun, 1994; Scholz & Rothenberger, 2006 참고). 강조하건대 개별화교육 위주의 시공간적으로 격리된 채 진행되는 특수교육은 해당 장애아동의 사회적 능력감 개발에 매우 취약한 조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장애/비장애아동 개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이러한 분리경험은 장애아동 뿐 아니라 비장애아동들의 사회적 능력감 내지 관계효능감 발달 역시 일정정도 제한하게 된다. 바꾸어 말해 분리교육은 장애아동교육의 현실인 동시에 비장애아동교육의 현실이기도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이 사회가 비장애아동들에게 장애아동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언뜻 보기에 도덕적이고 아무 문제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선 이러한 발상은 비장애아동이 장애인(아동)에 대해 동등한 관계설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며 또한 ‘체대로 돕지’ 못 할 경우 이들에게 쉽게 발생될 수 있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 대한 죄책감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는다(이러한 ‘죄책감 현상’은 대부분 성인기까지 평생 지속된다). 이것은 장애아동이 조기치료라는 미명하에 심할 경우 자칫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일상에 노출되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비장애아동에게 장애에 대한 시혜적 관점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쓸데없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혹은 심적으로 공연히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학대에 속한다(신영미, 정창교, 2001; 이호철, 2001 참고). 정리하자면, 동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계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리특수교육은 현 교육과정의 비윤리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극명한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삶과 생존의 기초이자 가장 큰 기쁨이면서 또 그러한 쾌의 원천인 ‘진정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관계효능감 개발은 현 분리교육 상황에서 일반교육 영역에서보다 특수교육 영역에서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교육과정적 과제이다. 그런데 관계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언제나 상호적인 것이므로 이는 자연히 통합교육과 연결이 된다(이런 의미에서 정인지체 장애아동의 관계효능감 발달은 언제나 정인지체 장애아동 ‘과’의 관계효능감 발달과 연결이 된다). 본 연구는 이에 ‘공간이론’으로서 애착이론에 토대하여 장애아동, 그 중 특히 정인지체 장애아동의 관계효능감 발달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정인지체 장애아동의 관계효능감 발달을 위한 반(反)분리교육의 중요성을 알아보려는 것을 주요 연구문제로 삼는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또한 공간적 격리가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공유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Levinas의 윤리철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살펴볼 것이다.

강조하건대 정인지체 장애아동의 관계효능감 발달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형식으로서 반(反)분리교육이 그 실천적 중요성에 비해 아직 학문적으로 충분히 고민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매우 절실한 이론적 작업이다. 바꾸어 말해 정인지체 장애아동의 관계효능감 발달을 위해서는 반(反)분리교육이 필수적인 교육형식이라는 사실을 학문이론적으로 논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에 해당한다. 덧붙여 정인지체장애인과 동등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지 못한 우리사회 대부분의 성인들(부모, 교사, 관련 전문가 등)이 계획하고 또 수행해가고 있는 정인지체 장애아동 교육(방법론)에 대한 이와 같은 근본적인 성찰은 인간,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사회권을 인간기본권적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모든 (소위) ‘뜻있는-나홀로교육’ (=개별화교육; 정은, 2006)이 가진 교육과정적 비윤리성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하나의 학문적 수행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자의 다년간의 현장경험 및 문헌조사에 기초함을 밝힌다.

II. 관계효능감 이해

1. 자기효능감으로서 관계효능감

Bandura에 의해서 제안된 개념으로서 현대심리학에서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자기효능감은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박영신 외, 1999: 60). 이것은 행동의 선택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간행동의 이해를 위

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효능감이란 여기서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하위기술들이 수많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화되고 효과적으로 잘 배합되어 있는 생성적인 능력(generative capability)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것은 인간 유능성의 생성 체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바꾸어 말해 비슷한 기술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환경에 처한 동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인효능감에 대한 신념의 정도에 따라, 잘못할 수도 있고 적절히 할 수도 있으며 특별히 잘 할 수도 있다(Bandura, 2003: 106). 예를 들어 자기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없을수록 어려운 환경에서 포기를 쉽게 하며, 이와 반대로 특정 과제에서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그 과제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그러한 행동을 지속하는 시간도 길다(Bandura; 박영신 외, 1999: 60).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자기효능감은 무엇을 통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앞 장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이것은 분명 기본 양육과정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 뒤에 논의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먼저 자기효능감의 형성과 관련된 최근 연구결과들, 특히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연구들에 집중해 보고자 한다.

먼저 효능신념의 근원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이는 다음과 같다(이하 Bandura, 2004: 22-25 참고): 첫째 인간의 효능감 신념을 형성 또 강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다. 성공경험만으로 무조건 효능신념이 형성되거나 강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효능신념 형성에 있어서 성공경험은 어떤 식으로든 필수적인 요소이다. 효능신념을 창조하고 강화하는 두 번째 효율적인 방법은 사회적 모델이 제공하는 대리경험을 통해서이다. 단 여기서 대리경험이 부정적일 경우 오히려 효능신념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언어적 설득인데 기분 역시 개인효능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Bandura는 밝히고 있다. 긍정적인 기분은 지각된 자기효능감을 강화하고 이에 반해 의기소침한 기분은 자기효능감을 약화시킨다. 즉 이는 적절한 언어적 설득, 대화를 통한 정서적 변화 및 안정감과 관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효능신념을 바꾸는 네 번째 방법은 신체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정서 성향을 줄이며, 신체상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체 반응과 정서 반응의 강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이상의 효능신념 형성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자기효능감이라는 것이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andura(2004: 32) 역시 지지적 관계는 스트레스, 우울 및 신체적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개인 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다음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김의철과 박영신(1999)은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모지원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가장 잘 예언하는 환경변인이었으며, 친구지원은 사회

성효능감을 설명하는 변량이 매우 높았다(박영신 외, 1999: 60). - 부모지원과 관계해 아 울러 이정규(2006)의 연구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고3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정적관계에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 같은 맥락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의철, 박영신, 박금주(1998)가 수행한 다음의 연구 또한 상당히 중요한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관계효능감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약 25% 설명하는 가장 예언력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정생활만족도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예언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즉 관계효능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은 만족스러운 생활이 성공적인 인간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박영신 외, 1999: 60).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살펴본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분석을 한 연구(박영신 외, 1999)에서도 역시 같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가 의사관계(spurious relation)나 단순한 상관관계(correlation)가 아니라 직접적이고 중요한 인과관계(causal relation)에 놓여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같은 책: 70-72). 정리하자면,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지 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특히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자기효능감으로서 관계효능감은 개인의 생활만족도, 바꾸어 말해 개개인의 행복(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와 한번쯤 잘 관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관계를 발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관계하는 당사자들 각자가 지각된 자기효능감으로서 관계효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지각된 관계효능감은 자기 자신이 주위 사람들과 또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들에서 자율적이고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다. 확실한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통합과 정서적 수용감을 갖기 위한 선행조건이다(Oettingen, 2004: 214). 그러나 문제는 지금처럼 안전을 위해 경쟁하는 불평등한 사회에서(Marris, 1991; Holmes, 2005: 311)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회적 관계는 쉽게 획득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Holmes가 기술하고 있듯이, 안정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곳이 가족인지 혹은 사회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같은 책: 309). 하지만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Eral(1987)이 자기신뢰 개념을 통하여 지적하듯이, 효능신념 발생조건에 대한 보다 세심한 통찰을 위해서는 이를 애착이론과 연결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ral은 자기신뢰 개념을 “자신이 지각한 과제를 완수하고자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신념+행위)”으로 정의한다. Eral에 따르면 자기신뢰는 효능감 기대와 결과기대에 의해 중재되는 특수 목적 주도 행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에 선행하며, 대개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의 특정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높은 융통성과 끈기를 통해 실현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볼 때 자기신뢰는 안전한 애착이 긍정적 자기모델을 갖게 한다는 가정에 토대를 둔 최근의 현대적 애착이론의 개념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chneewind, 2004: 145 재인용). 예를 들어 일관된 부모의 행동, 또 회고를 통하여 보고된 부모의 따뜻함, 수용, 지지와 같은 행동과 태도들은 후에 아동과 청소년의 내적 통제에 관한 신념을 촉진하는 반면, 부모가 처벌적이고 과도하게 통제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외적 통제에 대한 신념이 높다고 한다(Diethelm, 1991; Flammer, 2004: 132, 아울러 Brisch, 2003: 288-289 참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양육과정을 통한 애착경험이 효능신념의 선행요건이며 따라서 자기효능감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절에서는 관계효능감을 애착이론과 연결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2. 애착이론에 비추어 본 관계효능감

의료사회학자이며 심리치료사인 Tiril Harris와 그의 동료들은 사람(성인)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심리적 붕괴를 예방해주는 지지행동의 질, 구조, 역할을 연구하였는데(Brown & Harris, 1993; Harris, 1992)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까운 중요한 타인들이 보여주는 지지적 혹은 비지지적 행동에 따라 위기에 처한 사람의 심리적 반응이 크게 달라진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비지지 행동(unsupportive behavior)’은 힘든 사람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라는 연구 결과이다(Marrone, 2005: 92). 바꾸어 말해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지지적 혹은 비지지적 일상조건이 그가 처한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심할 경우 전반적 무망감(generalized hopelessness)으로까지 발전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같은 책, 91-92, 아울러 히타노, 이나가키, 2003 참고).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물론 해당인 주위에 기본적으로 접근가능한 관계망들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개개인이 능동적으로 엮어나가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공간이론(spatial theory)으로서 애착이론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같은 시대,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같은 공간 공유 및 공유 가능성이 그 직접적인 조건으로 자리하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애착이론은 주 양육자와 아동 간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애착이론은 단순히 영유아기의 초기발달이론이 아니며(Marrone, 2005: 62) Bowlby가 강조하듯이 애착(관계)은 전 생애에 걸쳐 영속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인간 삶의 한 내용이다. 또한 이 이론은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쪽이 그가 인식하는 불안과 탐색의 욕구 정도에 따라 보살핌을 주는 쪽과 자신과의 거리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절한다는 의미에서 공간이론(spatial theory)이다(Holmes, 2005: 239). 예를 들어 우리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거나 슬프거나 외롭다. 또 하룻밤 집에서 떨어져 있는 아이는 다치거나 잠잠 시간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행

복하게 잘 놀지만, 그 이후에는 집을 그리워하는 고통을 느끼곤 한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기를 아이 보는 사람에게 맡긴 엄마는 끊임없이 아기를 생각하고 몹시 그리워한다. 즉 애착은 보고 듣고 안음으로써 마음이 조정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내 영혼이 고양되고, 그 사람과 같이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설레임 섞인 기대감을 갖게 되는 유대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애착의 완성은 주로 오르가슴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을 성취함으로써 사람이 ‘상황에 잘 적응하여 살아가고’ 자신의 삶의 계획을 추구하고 탐색을 시작할 수 있는 편안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같은 책; 115-116). 따라서 애착행동이란 ‘사람이 차별화하여 선호하는 어떤 개인과 접근성을 성취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형태의 행동’으로 단순히 정의될 수 있겠다(같은 책; 117).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접근성이 담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바는 무엇일까. 바로 상대와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한 표정 노출이다. 그리고 이때의 표정은 존재의 자유함이 스스로 이행되는 형식으로 이해된다(Paz, 1981; 정은, 2003, 2004). 따라서 애착이론에서 강조되는 접근성의 문제는 또한 윤리학적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대표적 윤리철학자 E. Levinas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이하 Levinas 관련 내용은 변순용, 2000: 57-60; 김연숙, 2002: 67-68; Jantzen, 1998b: 56, 1998c: 92, 1998d: 164, 172-173; 아울러 Bauman, 1995 참고).

Levinas는 타자의 표정(얼굴; visage)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을 강조하면서 ‘표정’이란 “타자가 내 속에 타자의 이념을 넘어섬으로써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즉, “나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바깥으로부터 현재화할 수 있는 것의 출현”이라고 했다. 그래서 표정은 표현이며, 이것은 이미 그 자체로 말(discours)이다. 그리고 그 (Levinas)에게 있어서 “타인에게 말한다”는 것은 ‘그의 표현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인즉, ‘나’에게는 타자의 표정을 나의 내부로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바로 그런 수단의 부재로 인하여 타자의 ‘표정’은 언제나 마치 ‘예기치 못한 방문’과 같은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처럼 ‘나’는 도저히 ‘너’가 될 수 없는 바로 이러한 영원한 존재의 간격 때문에 - 진술한 표현을 빌자면 - ‘나’는 ‘너’에 대해 ‘설레임 섞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Levinas는 이를 사랑의 정열의 발생조건, 즉 존재자의 극복될 수 없는 이원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변순용, 2000: 55 참고). 정리하자면, ‘나’의 능력 바깥에 있으며,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정’은 ‘나’에게 말을 걸고 요청을 하는 역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역설적인 성격으로 인해 ‘표정’이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양식이다, 즉 ‘표정’은 우리에게 “공동의 소유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유일한 방식으로서 항상 “생생한 현재”로만 존재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표정’의 속성이 Levinas로 하여금 결론적으로 타자의 ‘표정’에 대한 ‘나’의 자발적 의무로서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 책임(즉 응답의 윤리)을 제안하게 한다.

공간이론으로서 애착이론이 강조하고 있는 접근성의 문제는 따라서 단순한 감각적(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접촉 가능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타자에 대한 자

기윤리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관계-윤리적 차원을 다시 애착이론과 연결해 살펴해보자면, 우리는 먼저 애착이론에서 유기체와 맥락은 분리 불가능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애착은 내면의 심리가 아닌 “관계에 대한 구성개념(construct)”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Marrone, 2005: 62-63, 80 이하 참고). 그리고 애착이론의 핵심인 ‘내부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s)’이 이 내용을 담고 있다.

‘내부 작동모델’이란 Bowlby(1969)가 개발하고 Peterfreund(1983)가 임상장면에서 적용한 것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에 대한 혹은 환경에 대한 인지적 지도, 표상, 도식 혹은 각본이다. 따라서 이것은 개개인의 적응행동과 관계되는 주관적 경험과 인지적 경험이 축적된 구조물이다. 즉 ‘내부 작동모델’이라는 용어는 “경험을 통하여 내면에 형성된 사람, 장소, 아이디어, 문화적 패턴, 사회적 구조 등과 같은 세상과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보통 ‘자기존중감’이라고 하는 것, 즉 자신은 사랑의 대상이며 사랑 받을 가치가 있다는 생각 또한 자기에 관한 작동모델에 들어 있다(Marrone, 2005: 101-103). 이렇듯 개인이 마음속으로 옮겨놓은 것은 ‘함께 한 경험(experience-of-being-with; Stern)’으로서 “관계”이다. 예를 들어 부모자식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지만, 사람(아이)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부모는 독립된 개체로서의 부모가 아닌 부모자식간의 “관계”이다(Marrone, 2005: 54; Stern, 1977).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 관계의 질에 따라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을 구분한다.

안정적 애착의 핵심은 능동적이고 호혜적인 상호작용이며 이때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의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Holmes, 2005: 175; Rutter, 1981). 즉 수동적 접촉만으로는 애착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안정 애착의 핵심은 양육자의 민감성(민감한 반응능력)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 아무리 ‘까다로운’ 아기라도 ‘좋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생후 1세가 되면 불안정한 애착이 아닌 안정적인 애착을 보인다는 증거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Holmes, 2005: 181-182). 또한 반대로 주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애정 어린 반응, 지속적인 보호와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양육자의 면전에서 박탈(불안정한 애착의 조건이 된다)이 발생할 수 있다(Marrone, 2005: 18).

이렇듯 아동에게 안정된 애착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아동의 탐색 행동 능력과 직결되기 때문인데(Holmes, 2005: 262), 가장 친밀한 사람과의 반복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안전한 기지로서의 애착이 신기한 것을 탐험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에 얼마나 필수적이고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Breger, 2003: 171; Schneewind, 2004: 154-157). 이런 관점에서 Bowlby는 개인의 애착 상태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결정인자로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형성한다고 하였고, 이는 애착유형과 사회적 능력감이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보고하는 관련 연구들에서도 입증되고 있다(Holmes, 2005: 231, 275).

결론적으로 관계효능감 발달은 애착발달에 토대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본적으로 애착이론이 탐색행위와 애착행위를 상호보완적인 행동기제로 간주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같은 책: 262). 이러한 의미에서 Ainsworth(1982)는 애착대상이 애착을 느끼는 사람에 대하여 만들어낸 환경을 묘사하기 위해서 ‘안전기저’라는 용어를 제안했다(Holmes, 2005: 120). 그리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안전기저로 작동하지 못할 때 흔히 불안정 애착이 발생되며 여기에는 양가적(ambivalent), 회피적(avoidant), 비조직적(disorganized) 유형이 있다(유형별 자세한 내용은 같은 책: 179-197; 아울러 장휘숙, 1998: 169-190). 불안정 애착 유형들은 안정 애착과 마찬가지로 세대 간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논점을 모으는 이유는 보다 안정된 애착이 가정 내에서 직접적으로 형성되기 힘든 것이 바로 이런 애착의 대물림 현상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주 양육자의 안정적이지 못한 반응 방식이 아동의 불안정한 애착을 유발시킨다(Holmes, 2005; Marrone, 2005; Brisch, 2003). 그래서 애착 관련 많은 결과들은 애착이론의 기본적인 원리 즉 ‘만일 부모가 아동에게 안정성을 제공하려면 부모 스스로도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전히 타당하다고 본다(Holmes, 2005: 307). 그렇다면 스스로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한 성인만이 아동에게 안정적인 애착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애착 유형의 세대 간 전달율이 높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먼저 애착이론가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와 힘든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인기에 안전애착군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발견했는데 이는 이들이 살아오는 과정에 제2의 애착인물(다른 친척, 교사 혹은 또래)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Marrone, 2005: 88). 또한 성찰 능력(reflective capacity)이 뛰어난 부모는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을 지라도 자녀에게 안전애착을 심어줄 수 있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는 복원력(resilience)은 심리적 면역체계라고 할 수 있는 성찰능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같은 책: 95-96). 여기서 의미하는 성찰 기능(reflective function)이란 “자기와 타인은 독립적인 사람이며, 생각하고 느낄 줄 알며,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저변의 심리 상태와 지식에 의해 행동이 유발된다고 생각하는 능력”이다. 또한 성찰 기능은 자신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개인적 혹은 대인관계적 사건을 생각해보는 능력과도 관련이 있다(같은 책: 131).

정리하자면 부모(즉 주 양육자)가 과거 어린 시절에 자신의 부모로부터 안정된 애착을 경험하지 못했다하더라도 지지와 안정을 후원해주는 제2의 애착인물이 있으면 충분한 복원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부모의 성찰 기능을 통해 현실화된다.

그럼 지금과 같이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현대 사회에 사는 성인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이런 성찰 기능 계발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이러한 성인들(성찰 기능 계발에 어려움을 갖는 성인들)의 과거 피양육 경험을 돌이켜 살펴 볼 수밖에 없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어린 시절 폭력 및 학대 경험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학대, 그 중 특히 폭력 경험이 인간의 인지 및 감정 영역의 건강하고 자유로운 발달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최근 연구 결과들이 본격적으로 밝혀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Miller, 2005; LeDoux, 2005; Jantzen, 1998a, 1999a).

법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국가(예를 들어 스웨덴)를 제외한다면 전 세계 거의 모든 아이들이 맞고 자란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87%는 자녀에게 체벌을 사용하고 있으며, 94%의 부모가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이배근, 1993; 방희정, 2005: 634). 프랑스에서는 80%의 부모가 육체적 폭력을 교육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Miller, 2005: 103), 미국에서도 아동이 3-4세일 때 94%의 부모들이 아동을 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덧붙여 미국의 23 개주에서는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방희정, 2005: 634; Miller, 2005: 81). 이러한 현실적인 흐름 속에서 Miller(2005)는 아동들에 대한 다양한 체벌과 학대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그녀의 저서 <사랑의 매는 없다>를 통해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Miller의 연구에 의하면, 폭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폭력을 행사한다(Miller, 2005: 143-144). 앞서 논의했던 애착의 대물림과 마찬가지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하지만 애착의 대물림에서 예외들이 있었듯이, 어려서 폭력과 학대의 희생자였으나 훗날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난폭한 폭력이 상쇄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간접보호자'(친척, 이웃 등)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같은 책: 12-13, 79).

앞서 폭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폭력을 행사한다고 했는데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밝혀두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의미하는 폭력이란 흔히 생각하듯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선' 심각한 수준의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간단한 손찌검, 언어적 폭력, 대중매체 영상 등을 통한 폭행 관찰 경험, 나아가 출생하자마자 아기가 의사에게 찰싹 엉덩이를 맞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즉 우리는 누구나(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린 시절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따라서 누구나 언제든 (심각한 정도까지도 감수하는) 폭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Miller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어린 시절 학대 경험의 심각한 후유증을 밝히고 있는데, 폭력경험의 심각성은 구체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감정둔화와 사고의 폐쇄성에서 찾을 수 있다(이하 Miller, 2005: 17, 34, 128-151; 방희정, 2005: 637-638 참고).

아이는 대부분 자신이 사랑하는 최초의 사람(부모)로부터 최초의 폭력을 경험한다. 이렇게 학대(무시 혹은 폭력)당한 아이는 자신의 고통을 부인하는 과정(예: '내가 잘못했으니 맞은 거야. 엄마는 날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 거야, 그러니 괜찮아, 고통스러워 할 필요 없어')을 통해 자신의 고통에 둔감해 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자라서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둔감해진다(예: '네가 당한 그 정도 꾸중은 아무 것도 아니야, 난 그런 상황이었을 때 더 크게 꾸중 듣고 맞았어.'). 이렇듯 타인의 고통에 대한 둔감성(감정이입

능력의 결여)은 결국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폭력경험으로 닫힌 뇌가 새로운 정보를 유연하게 흡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사고의 폐쇄성).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나아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타인에게 무책임한 상처를 주게 될 소지가 크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라면서 폭력적인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답습할 수 있기 때문이며(즉 의식적 차원) 또한 남이 자신의 언어나, 사고, 행동을 통해 모욕감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게 될 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자체에 대해 스스로가 둔감하기 때문이다(무의식적 차원)(Miller, 2005: 135). 이 때문에 이들은 쉽게 폭력적인 관계를 만들고 유지해 나가게 되는데 자신의 사고폐쇄성 때문에 이를 자각하지 못하므로 반복해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폭력이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자신이 폭력적이라는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즉 ‘모르고’ 한 행위이므로 자신이 가한 상처에 대해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질 줄도 모른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의 학대경험은 궁극적으로 무책임한 사회인을 양성하는 초석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그 부당함을 인정받지 못한 폭력 경험의 상처는 앞서 논의한 타인에 대한 민감성의 기초가 되는 성찰 기능 발달에 큰 걸림돌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Miller의 주장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폭력성을 알아야 하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본 논제(관계효능감)와 연결해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상대가 이상하거나 나쁘기 때문에 ‘내’가 그와 관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오히려 그때그때마다의 구체적인 어떤 상대에 대한 ‘내’ 사고의 폐쇄성(상대를 모르니, 즉 이해할 수 없으니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다)과 앞서 논의한 바 있는 자기윤리성의 미성숙함에 있다. 그러므로 나의 상처가 너를 당당하게 상처 주는 이런 현실에 대해 우리는 진심으로 돌이켜 성찰해야만 한다. 더구나 상대가 어린 아동, 법적 미성년자일 경우 전술했듯 자신(성인, 즉 교사, 부모 등)의 상처를 무기화하여 관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아이들 서로서로가 개방적이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위축시키고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Miller, 2005: 70, 162 참고).

정리하자면, 건강한 관계효능감 개발에 기초가 되는 안정적 애착은 스스로 어린 시절 안정적 애착을 경험한 사람만 전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문제는 성찰 기능 개발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성인들 스스로 자신의 폭력성을 구체적으로 알고 또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덧붙여 지금과 같이 인간 간에 폭력적인 관계가 일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안정/불안정 애착이라고 구분하기 위해 만든 기준 자체가 어찌면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마지막으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Bowlby의 비유처럼,

“만성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사회일 때는 당치 않게도 부적절한 영양 수준을 영양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부모들이 나이 어린 아동들에게 만

성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된다”(Holmes, 2005; 303 재인용).

따라서 우리 사회 모든 성인들은, 특히 (특수)교사는 일상적으로 공공연하게 학대받고 매 맞는 아이들에게 가정 외적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간접보호자, 애착이론의 용어를 빌자면 제2의 애착인물(안전기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자기 상처)과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된 작업은 그 자체가 우리 아이들(장애아동이든 비장애아동이든)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관계효능감을 길러줄 수 있는 가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3. 정신지체와 관계효능감

많은 장애아동들이 정신지체 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다. 정신지체 발생에 대해 학문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제안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신지체 또 정신지체장애인의 발달과정에 대해 어떤 일관성 있는 해명은 없다. 하지만 최소한 과거 지능지수(IQ)만을 중심으로 정신지체를 정의하던 풍조는 서서히 그 설득력을 잃고 있다. Sinason(2000)은 정신지체를 이차적인 장애현상으로 이해해야 됨을 여러 사례연구들을 통해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학습된 무능력’으로 정신지체를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이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Cheong, 2002; Feuser, 2000; Jantzen, 2000). 이와 함께 정신지체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적 관점 또한 최근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중 하나이다(Jantzen, 2005; Jantzen & Lanwer-Koppelin, 1996; Meyer, 1998). 이러한 동향은 앞서 많은 장애아동들이 정신지체 현상을 보인다는 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러한 관점과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정신지체는 장애아동이 처하게 되는 부적절한 언어 환경 및 사회적 소외 관계에 기인하는 하나의 사회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Jantzen(1999, 2000)은 이러한 발달 조건을 폭력(Gewalt)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 절에서 애착이론과 관계해 논의했던 아동학대와도 관계가 있다.

아동학대의 후유증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해리와 아동기 외상의 연관성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다. 이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보살피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심각한 외상을 주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은 어느 누구에게나 불가능한 일이며 따라서 이런 경우 해리는 불가피한 결과라는 것이다. 물론 학대당한 모든 아동이 이렇듯 해리 정체성 장애(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DID)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리상태는 다양한 형태의 정신증(psychosis)으로 출현하기도 하고, 정신적 혼란(mental disturbance)의 형태로 출현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Marrone, 2005: 305). 현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특정한 원인으로 인한 정신지체인지 아니면 소위 정신지체-현상(‘정신지체처럼 보이는’ 현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해내기 힘든 경우가 많고 동시에 대부분의 정인지체 장애아동들이 정서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현실이 또한 이러한 의구심(정인지체인지 DID인지)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러한 현실 뒤에 정인지체 장애아동에 대해 민감한 반응성이 부족하거나 비지지적인 주변인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 즉 병리적 소통이 있다는 사실이다. 앞 절에서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관계효능감 발달이 애착발달 및 사회적 지지관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정인지체 장애아동에 대해 거의 일반화되다시피 한 병리적 소통방식(이것은 쉽게 정서 및 행동장애를 유발한다)은 결과적으로 정인지체인들의 관계효능감 발달에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Pedder(1982)는 좋은 자아존중감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도 좋게 느끼고 타인에 대해서도 좋게 느끼는 양방향의 관계성을 내재화하는 것이라고 했다(Holmes, 2005; 283). 히타노와 이나가키(2003)가 연구 보고한 인간의 무기력 심리 발달에서 이의 부정적인 발달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조건 하에 놓이는 인간은 쉽게 무기력해지며 이는 그 개인의 사회적 무능력으로 실재화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인지체아동들이 대부분 가정이라는 장소에서(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즉 가정 내 상호작용 패턴 및 양육 방식에 의해서 오히려 아이가 정인지체화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그것이다(Sinson, 2000; Jantzen, 1998a, 1999b; Hayden, 2005, 2005; 주정일, 2002; Axline, 2005). 달리 표현해, 가정이라는 장소가 존중되고 보호된 경험을 통해 지역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불안정성을 투사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즉 장소의 주인으로서 안전하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탐색하는 데 분명 자유로워질 것이다(Holmes, 2005: 314). 사회적 지지와 관계효능감 발달의 정적관계를 생각할 때(II-2 참고) 이는 자명하다. 그런데 이렇듯 ‘장소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정인지체아동들은 어쩌면 이 사회에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가 없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Bowlby는 일대일 애착과 집단적 애착 모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둘은 상호보완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두 가지 애착의 주된 생리학적 기능은 안전한 협조이며 궁극적으로 역경을 헤치고 살아남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동년배와 어울리거나 집단에 참여하는 것(Bowlby는 이것을 ‘친목 관계(affiliative relationships)’라 했다)은 점점 더 중요해진다(Marrone, 2005: 10, 268). 또한 개인이 환경과 타협하는 방식이 내적 성향뿐만 아니라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및 상황을 해석하는 사회적 방식에 달려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같은 책: 27) 다양한 친목관계는 매우 중요한 인간 발달 환경이다. 덧붙여 상호작용모델에 토대해 Waddington(1975)이 제안한 ‘발달경로(developmental pathway)’개념을 빌어 설명하자면, 인간의 성격은 다양한 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끊임없이 그 길을 따라 가며 발달하는 구조물이며 이때 통로의 선

택은 개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Marrone, 2005: 49). 애착이론이 제안하는 내부 작동 모델은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변하는 것이다(Holmes, 2005: 193).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에서 Winnicott는 ‘상태의존적 학습(state-dependent learning)’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물을 학습하거나 학습한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물과 연관된 감정을 재경험할 때만 가능함을 암시한다(Winnicott, 1965; Holmes, 2005: 253).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정신지체 장애아동의 보다 긍정적인 관계효능감 발달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일까. 앞서 암시되었듯이 새로운 ‘공유된 활동’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정신지체 장애아동의 타인과의 관계현실을 잠깐 들여다보자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흔히 ‘아무리 내가 마음을 열어도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능동성을 보이지 않는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정신지체인들의 비능동성)은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정신지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간주관적 관점에서 다르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애착유대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영속성에 있다. 학대와 심한 처벌에 직면해서도 애착이 지속된다는 사실이 그 극단적인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의 애착 지속성은 스트레스의 원천이 바로 애착대상일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애착행동을 강화하기 때문에 생긴다.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아이가 ‘얼어붙어 주시하는 행동’은 양가적 애착, 그리고 정상적인 탐색과 놀이를 자제하는 현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다(같은 책: 125). Stern과 후기 Bowlby 학파 등 애착 연구가들에 따르면, 어머니의 반응성은 자라나는 아동에 의해 내면화되어, 아이는 자신을 반응 받는 존재이고 상호작용적이며 또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 반대로 반응성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거나 이해받을 수 없는 자극이나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심지어 자기가 심하게 고통스러워하면 부모는 야단치거나 부당하게 대우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이런 식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아동들은 자신의 불행에 대한 상징적 표상 능력 및 이에 따른 정서적 처리과정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 참을 수 없는 흥분과 고통의 감정을 그들과 애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배출시키는 투사적 동일시로 방향을 틀게 되는 것이다. ‘얼어붙어 주시하는 행동’과 같이 학대하는 부모에게 경계를 보이며 매달려 있는 현상이 그것이다(같은 책: 293).

동시에 우리는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가성 상호 소통(pseudo-mutuality) 관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부모(혹은 교사 등 주변인)가 아이에게 모순되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엄마가 “애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리 와서 안기렴.”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딱딱한 표정으로 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이 비언어적인 신호에 반응하여 주춤하면, 엄마는 “너, 왜 그러니. 이해할 수 없구나.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말하는 식의 소통 방식이다

(Breger, 2003: 290). 쉽게 상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소통 방식은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흔히 경험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아이에 대한 정서적 방임 내지 학대에 해당되는 것이며, 특히 이것이 정신지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는 대화방식(소위 아이의 마음을 한 번 떠보는 식의 대화가 전형적일 것이다)임을 생각할 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심리생리학적 발견들에 의하면 어린 나이에 분리가 되면 두뇌 수용체의 감각에 장기적 영향을 미쳐, 불안 수준이 영속적으로 높아진다(Van de Kolk, 1987; Gabbard, 1992). Post(1992)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폈는데,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뇌세포의 민감도가 점차 고조되는 간질의 ‘점화’ 현상을 유추할 때, 성인기의 우울증은 두뇌의 단백질이나 RNA의 변화로 생기는 환경적 외상에서 발생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즉, 환경적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된 것들이 결국 두뇌의 고유한 특성이 된다는 것이다(Holmes, 2005: 156; 아올러 Miller, 2005: 34, 35, 96, 128-132). 신경심리학자 Lurija는 이에 일찍이 ‘(인간) 삶의 사회적 형식은 (그 인간의) 두뇌가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도록 강요하고 또 질적으로 새로운 기능적 체계가 형성되게 한다’는 사실을 논증했다. 바꾸어 말해, 어떤 개인을 소외시키는 삶의 사회적 형식은 그의 두뇌가 새로운 ‘병리적’ 방식으로 일하도록 강요하며, 질적으로 새로운 (기능적) ‘병리적’ 체계를 생성하게 한다는 것이다(Jantzen, 1979: 64; Lurija, 1995 참고).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정신지체장애인(아동)에 대해 ‘아무리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도 능동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들의 관계효능감을 부인하는 현실에 있어서 이들의 ‘능동적이지 못함’은 정신지체 자체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이제까지의 삶과 일상을 통해 구조적으로 무수한 병리적 관계를 경험해 온 사실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앞에서 앞서 제안했던 새로운 공유된 활동은 어떠한 해야 할까.

우리는 앞서 성인과 달리 어린이는 생존을 위해서 학대로 인한 고통과 굴욕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감성적으로 둔감한 인간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학대로 둔감해진 감성은 위협을 피하려고(다시 말하자면 정신적 외상을 입지 않으려고) 뇌 속에 장벽(‘사고의 폐쇄’)을 설치한다. 즉 정신적으로는 이미 상처를 받은 상태지만 사고의 폐쇄로 인하여 자각하지(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육체는 자기가 겪은 굴욕을 빠짐없이 기억한다(Miller, 2005: 17, 149-150). 끊임없이 폭력에 노출되었던/노출되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인(아동)들의 삶을 생각할 때 자신의 경험들에 대해 머리로 잊어버려도 ‘몸이 기억한다’는 이 사실은 따라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몸에 대한 느낌이나 정서, 그리고 몸에 발생하는 고통이나 쾌락은 그 몸을 지닌 개인의 것이다. 그러나 몸의 외양이 갖는 의미나 몸이 느끼는 고통과 쾌락의 의미를 개인이 스스로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몸이 경험하는 고통이나 쾌락에 관한 의미는

개인의 내부에 있다기보다는 간주관적인 것이며, 그것이 의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문화 속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몸에 대한 감각이나 체험의 의미는 그 사회의 언어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통되고 이해된다(김은실, 2004: 199-200). 즉 인간은 서로가 서로의 몸을 만들고, 지능을 만들며 또 감성을 키우며 이것이 인간 발달의 진실된 내용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몸을 통해 느끼는 것을 타인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의 새로운 소통방식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정신지체인과의 새로운 공유된 활동은 우선적으로 인간의 삶은 몸의 삶이라는 관점에 근거한 활동이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이제껏 논의한 관계효능감에 대한 이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Levinas의 ‘향유’ 개념을 이에 대한 접근 관점으로 삼으려고 한다. 정신지체장애인(아동)들의 소외받고 상처받은 몸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공유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있어서 Levinas의 ‘향유’ 개념은 중요한 방법론적 제안이 될 것이다.

Levinas는 모든 대상적 세계와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를 향유로 설명한다. 프랑스어 향유(jouissance)는 한자어 享有로, 우리말로는 ‘전신적 기쁨’을 의미하며(김연숙, 2002: 71), 이것은 곧 ‘자아와 물질적인 대상적 세계와의 관계’(같은 책: 74)이다. 사물들의 의미를 인간의 생존을 위한 도구 사용의 관점에서 보고 인간존재를 염려하면서 세계 안에 거주한다고 말하는 Heidegger와 달리, Levinas는 인간존재를 근본적으로 향유를 누리면서 세계에 거주하는 존재로 본다. 즉 Levinas는 대상적 사물을 도구가 아니라 궁극적인 것으로 설명하며 그 같은 관계를 향유로 표현하고 있다(같은 책: 73-74). 따라서 향유는 인간 삶을 채우는 모든 내용의 궁극적인 의식이며, 이것은 곧 행복이고 행복으로서의 독립성이다. 향유적 자아의 독립성은 삶의 내용을 함축하는데 예를 들어 숨 쉬는 것, 먹는 것, 일하는 것 등의 기쁨과 고통이 삶의 내용이다. 그런데 삶을 구성하는 이러한 다양한 내용물들은 삶에 있어서 불가결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들이 없다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다. 예컨대 원기회복으로서의 영양(aliment)은 타자를 동일자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타자인 에너지는 향유 속에서 나 자신의 에너지, 나의 힘, 나로 된다. 이것이 향유의 본질이며 이런 의미에서 모든 향유는 영양의 흡수이다(같은 책: 74). 바꾸어 말해 타자의 타자성은 나의 욕구에 의해 정복된다(같은 책: 75). 쉽게 표현해, 내가 어떤 사물(음식, 가구, 꽃 등)에 대해 욕구를 느끼면서 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면서 그의 타자성이 극복되는데, 이때의 ‘욕구’는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 사이에 놓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 육체를 통해 존재하는 것이다. 즉 존재는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욕구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는 자유롭지만 결핍된 존재에 속하며 여기에 접합점으로서의 인간의 육체가 있다(같은 책: 75-76). 그래서 예를 들어 꽃향내를 맡을 때 이 냄새 맡는 행위의 목적성이 제한되는 것은 바로 그 향내이다. 산책하는 것은 숨을 들이 마시는 것인데, 그것은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선한 공기 자체를 위해서이다. 세계 속에 있는 인간의 실존을 특

정지우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양분이며 그래서 대상과의 관계는 ‘향유’인 것이다. 따라서 모든 향유는 존재방식이며 또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변순용, 2000: 50).

결론적으로 어떤 것으로부터 살아간다는 향유적 삶의 역설은 생명이 의존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자기만족이다. 욕구는 이러한 의미에서 의존이기 때문에 자유로 특징지을 수도 없고, 그것이 이미 친숙한 무엇인가로부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성으로 특징지을 수도 없다. 그리고 여기서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러한 욕구의 고통은 무욕(anorexy) 속에서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만족으로 진정되는 것이며, 욕구가 없는 존재는 욕구가 있는 존재보다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과 불행의 바깥에 있다는 Levinas의 주장이다(김연숙, 2002: 76). 따라서 욕구의 고통과 만족이라는 과정적 차원에서 ‘영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는 인간 몸의 감성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Levinas는 ‘영향받을 수 있는 가능성’ 즉 살갓에 맞는 직접성, 달리 표현해 ‘상처입을 수 있음’을 결국 향유(=대상과의 관계)의 원천(=근원적인 생기와 풍요함)으로 본다(같은 책: 78). 그러므로 우리가 관계효능감을 효능신념의 의미를 넘어서 Levinas의 ‘향유’ 개념으로 조망해 보았을 때 지각된 관계효능감의 내용은 먼저 다름 아닌, 새롭게 영향받음(즉 상처) 달리 표현하자면 변화에 대한 나의 두려움이 바로 내가 세계 그리고 타인과 관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인지체인(아동)의 관계효능감 발달을 위한 새로운 공유된 활동은 우리가 이들의 이제까지의(아울러 지금의) 소외받고 상처받은 몸에 대해 ‘욕구’(Levinas가 말한 의미에서)를 인식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충분히 논의했듯이 이러한 욕구 - 결론적으로 이것은 전술한 지각된 관계효능감의 구체적 내용이 된다 - 는 우리가, 내가 새로이 만들어 내야 하는 어떤 인공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삶, 미래 또 관계에 대한 우리 각자의 두려움 안에서 발견되는 내지 찾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것임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

III. 정인지체 장애아동 관계효능감 발달의 필수적인 교육형식으로서 반(反)분리교육의 중요성

관계효능감에 관한 이제까지의 다각적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정인지체 장애아동의 관계효능감 발달을 위해서는 정인지체 장애아동과 비정인지체 장애아동이 같은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확보 그리고 그 만남 대상 자체를 상호 궁극적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전자(서로 관계할 수 있는 기회 확보)의 중요성은 특히 공간이론으로서의 애착이론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는 또한 구체적으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명시된 바가 실현될 수 있는 전제조건과 직결된다.

국제장애인인권조약 제17조에 따르면,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즉 완전한 사회통합과 교육통합은 이제 우리시대의 의무이다. 단 여기서 우리는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했을 때 이를 당연 어떤 정적인 상태로 상정한다. 하지만 인간의 외모, 성격, 능력 등을 포함한 한 개인의 정체성은 언제나 역동적이고 변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란 관계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지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환경이나 그 안의 타인들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번 강조하였지만, 여러 타인들과 섞이는 다양한 경험 속에서 비로소 특정 개인의 정체성은 본래의 역동적인 성질을 갖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풍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전술했듯 ‘서로 만나되 그 대상 자체를 상호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의식’이 필요하다.

Levinas의 윤리철학을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서로에게 접근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장애아동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흔히 그 아이의 교육권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라는 것이 현장의 소리이다. 등교하고, 일정시간 학교에 머물고 또 하교하는 외형적인 모습이 그 해당 장애아동의 교육권 실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고제현, 2006). 나아가 특수학교학생, 특수학급학생 또 통합학급 내 외톨이 정신지체 학생들은 여전히 동일한 특성에 따라 분류되어 버리곤 한다. 예를 들어, 중도 정신지체와 행동 문제를 지닌 아이들, 경도의 정신지체와 반사회적 행동특성을 지닌 아이들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행위는 McGee등이 지적하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들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배치들은 거의 불가피하게 순종과 별의 기대를 창출하며 나아가 정신지체인에게 적합한 행동에 대한 모델을 거의 남겨 놓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초점은 행동이지 사람이 아니다(McGee et. al., 2003: 193). 여전히 기계적인 행동수정원리에 기초한 개별화 교육이 특수교육 현장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교육과 ‘조련’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지 못할 때 그 공간은 그저 가성 상호 소통으로 가득 찬 소음의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일찍이 Harlow(1971)는 고립되어 성장한 원숭이들이 생식과 지배 행동에 심한 왜곡을 보인 데 반해, 오히려 어미 없이 또래와 성장한 원숭이들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했음을 연구 보고했다. 어미(엄마)보다 또래(친구)가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 이 실험결과는 당시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는데, Harlow는 결론적으로 지배, 성적 행동, 성과 연관된 사회적 행동에서, 어린 시절 놀이가 적절한 성인기능에 결정적인 전구체가 된다고 지적했다(Breger, 2003:

209). 태생적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사회적 동물에게 같은 종 구성원들과의 ‘단절’이 가져오는 돌이킬 수 없는 폐해에 관한 연구결과인 것이다.

‘단절’은 사회적인 존재의 상호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감정 교환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불가능하게 한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Foucault는 감성적인 것, 시간, 타자에 대한 인간의 관계가 변질되는 환경들 속에서, 인간의 삶과 변전(變轉)에서 직접적인 것과의 단절인 모든 것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다양한 인간의 정신병리적 현상을 지적했다(Foucault, 2005: 584).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논의를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특수교육이란 미명하에 진행되어진 분리교육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구조적으로 인간정신의 병리적 발달과 해리현상을 초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현대인들에게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이런 보편화된 해리현상을 Breger는 쉽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Breger, 2003: 304-307; 아울러 Basaglia, Basaglia-Ongaro, 1980 참고): 여성이 늙으면, 그들은 주름살과 싸우고, 머리를 염색하여 회색 머리는 볼 수 없고, 젊은 외모를 되찾기 위해 수술까지도 불사한다. 정말 늙은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장차 그렇게 될 것임을 상기시켜 주는 불편한 존재이다. 우리 사회는 그들을 격리시켜, 안 보이는 곳에 방치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비슷한 격리가 너무나 편협한 개념에서 비롯된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발생한다. 좀 낮은 지능의 사람들은 정신지체를 위한 기관에 수용되고, 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 병원에 갇힌다. 하지만 우리는 격리 수용에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과거에는 항상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신 병원과 정신지체를 위한 기관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사회 시설이다. 결론적으로 소위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격리는 인간 현실의 일부분을 우리로부터 해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아동의 관점에서, 소위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격리하는 것은 아동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서 이런 특징을 발견했을 때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나쁜 문제가 생겼다고 느끼게 만든다. 아이는 마치 모든 사람이 늙고 미친 할머니를 갖고 있으며, 그들은 할머니를 다락방에 숨기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족이 ‘정상’임을 가장한다고 생각한다. 즉 아이들 자체는 자신이 위장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 위장된 행동을 하므로 비밀리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장면에서 사회적 해리는 개인의 해리로 연결된다. 즉 불안, 죄책감, 자존심에 대한 위협 등의 아픈 감정들은 그 해당 개인에게 매우 절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은 이런 아픈 감정들이 인식될 것 같으면 해리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빠른 해결책으로 즉각 도피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Miller(2005)가 지적한 심리변화의 논리 그대로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해리적 내지 병리적 관계 형성의 문제점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정신지체 장애아동을 대할 때 더욱 두드러지는 편의주의적 방식들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McGee 등(2003)의 보고에 따르면, 교사와 정신지체인의 전형적인 상호작용을 분석해 보면 보상의 상호교환에 거의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또한 Anderson(1986)은 그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보상을 하기보다는 촉진을 하고 훨씬 더 자주 수정을 한다는 점과, 평균 매 8회의 요구적인 상호작용에 대해 단 한 번의 보상적인 상호작용의 비율로 서로 관계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연구에서 아동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반응을 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반응하거나 혹은 분열적인 행동을 하면서 보냈다. 즉 교사들은 부정확하고 관련성이 없는 반응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McGee et.al. 2003: 102-104).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교수 계획이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McGee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계획들의 실질적인 폐해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롭거나 타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세와 교수 목표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꾸어 말해 우리는 모두 기껏해야 편의주의적으로 장애아동을 대하고 또 교수하고 있는 것이다(같은 책: 263-264). 부모든 교사든 장애아이들과 관계된 스스로의 일(수업)에 대해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아이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가르친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큰 착오이며 또 허상일 따름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모든 정확하지 못한 인식들이 앞서 논의했듯 ‘단절’에 기인한 결과라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정신지체 장애아동들이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받으며 관계효능감을 발달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공교육 체계 속에서의 반(反)분리교육(완전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하기를 “인간은 자신의 이웃을 감금함으로써 자신의 건전성(sanity)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Foucault, 1991: 7 재인용). 하지만 우리는 이제껏 바로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미래의 통합을 위한 지금의 분리’라는 아이러니한 현실(이것이 곧 교육과정상의 비윤리성이다)을 묵과해왔다. I장에서 지적한 ‘공유된 무관심’이 그것이고 II장에서 논의한 우리의 폭력성에 대한 무지와 불감증이 이를 대변한다. 또한 인간적인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관계효능감 발달에 있어서 비통합교육 혹은 분리 특수교육 경험은 장애아동들 뿐 아니라 비장애아동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는 본 연구를 통해 공간이론으로서 애착이론에 비추어 조망해 보았을 때 그 심각성을 더욱더 실감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간단히 정리하겠다.

첫째, 효능신념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원이 존재할 때 가능하며, 자기효능감

으로서 관계효능감은 개인의 생활만족도, 즉 개개인의 행복(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관계효능감 발달은 애착발달에 토대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본적으로 애착이론이 탐색행위와 애착행위를 상호보완적인 행동기제로 간주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여기서 공간이론으로서 애착이론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의 혹은 미래의 애착대상에 대한 접근성(확보)이고 이러한 점에서 접근성은 '무조건적 응답'이라는 관계윤리적 차원과 함께 고민되어야 할 내용이다.

셋째, 지금과 같이 아동학대가 만연한 폭력적인 사회에서 정인지체 장애아동들의 건강한 관계효능감 발달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사회 성인(특히 교사)들이 자신의 폐쇄적 사고와 싸워나가야 하고 나아가 이들의 간접보호자 내지 제2애착인물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정인지체 장애아동들이 보이는 관계에 대한 비능동성은 정인지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간주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들이 이제껏 사회구조적으로 겪어온 병리적 관계 경험에 기인한다. 따라서 만남 대상 그 자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의식(Levinas의 "향유")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 모든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였을 때 정인지체 장애아동(과)의 관계효능감 발달을 위해 반(反)분리교육은 꼭 필요한 교육형식이다.

참고문헌

- 김병하 (2000). 특수교육 패러다임 이동과 특수학교의 재구조화. **특수교육학연구**, 3(3), 137-162.
- 고제현 (2006). 장애어린이 교육권의 참뜻. **보이스 2006 여름호 (통권 20호)**, 도서출판 보이스, 58-59.
- 김성애 (2006). 레비나스의 윤리관에서 본 특수교사의 윤리성 제고.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7(1), 177-196.
- 김연숙 (2002). **레비나스 타자윤리학**. 경기도 고양: 인간사랑.
- 김은실 (2004). 몸을 통해 문화를 본다; 한국문화인류학회(2004).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 서울: 일조각, 197-213.
-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노혜련 (1993). 아동훈육과 아동학대의 구분: 문화적 배경의 영향. **한국 사회복지학회**, 19, 13-137.
-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57-76.
- 박영신, 김의철, 광금주 (1998).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요인: 도시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79-101.
- 방희정 (2005). 모(母)의 체벌 신념이 체벌 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적응 문제에 미치는 영향 - 체벌 충동성의 중재 효과를 중심으로 -. **교육심리학연구**, 19(3), 633-652.
- 보이스(VOICE) 2006 여름호 (통권20호)**. 도서출판 보이스.

- 변순용 (2000). 타자의 윤리학. *국민윤리연구*, 45(2000. 12), 47-66.
- 신영미, 정창교 (2001). **우리아이가 눈을 맞춰요 - 자폐치료 통합교육이 최선이다**. 서울 : 룡셀러.
- 유현경 (2004). **자폐아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 서울: 들녘
- 이배근 (1993). 아동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아동복지학*, 1(1), 46-57.
- 이정규 (2006).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고3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교육심리학연구*, 20(3), 571-586.
- 이호철 (2001). **학대받는 아이들**. 서울: 보리.
- 장휘숙 (1998). **발달정신병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은 (2002). Mescerjakov-Experiment를 통해 살펴 본 시청각 그리고 시청각 및 정신지체 중복장애인의 교육적 전망. *정서.학습장애연구*, 18(2), 225-239.
- 정은 (2003). 학문일반론적 논의를 통한 특수교육학의 위상 재조명. *특수교육 저널 : 이론과 실천*, 4(3), 1-15.
- 정은 (2004). '특수아동'(장애아동)상담의 실천적 이해를 위한 방법론적 탐색.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5(2), 319-340.
- 정은 (2005). **개별화 교육 다시 이해하기**. 미간행. 대구 SCN 청서공동체 FM 방송칼럼.
- 정창교 (2004). **마이너리티의 희망노래**. 서울: 한울림.
- 주정일 (2002). **한국의 덤스**. 서울: 샘터.
- 한경구 (2004). 왜 문화인가; 한국문화인류학회(2004).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 서울: 일조각, 19-31.
- 히타노 기요오, 이나가키 가요코 저/위광희, 박원숙 역(2003). **유능감을 키우는 교실**. 서울: 정민사.(원출판년도 1981)
- Ainsworth, M. (1982). 'Attachment: retrospect and prospect', in C.M. Parkes and J. Stevenson-Hinde (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ur*, London: Tavistock.
- Andersen, K. W. (1986). A study of the interactions between handicapped children and their teachers. Master's Thesis, Omaha: Meyer Children's Rehabilitation Institute, August, 1986.
- Axline, V.M. (2005). **덤스**(주정일, 이원영 역). 서울: 샘터. (원출판년도 1964)
- Bandura, A. (2001).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박영신, 김의철 역). 서울: 교육과학사. (원출판년도 1997)
- Bandura, A. (2003).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역). 서울: 교육과학사. (원출판년도 1997)
- Bandura, A. 편저 (2004).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기효능감**(윤운성 외 역). 서울: 학지사.(원출판년도 1995)
- Bandura, A. (2004). 변화하는 사회에서 개인효능감과 집단효능감 발휘하기; Bandura, A. 편저 (2004).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기효능감**(윤운성 외 역). 서울: 학지사. 19-72. (원출판년도 1995)
- Basaglia, F. & Basaglia-Ongaro, F. (Hrsg.) (1980). *Befriedungsverbrechen. Ueber die Diestbarkeit der Intellektuellen*. Frankfurt/M.: Erupaeische Verlangsanstalt.
- Bauman, Z. (1995). *Postmoderne Ethik*. Hamburg: Hamburger Ed.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I: Aggachment*. Londen: Hogarth Press.
- Brown, G.W. & Harris, T.O. (1993). 'Aetiology of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s in an inner-city population. 1. Early adversity.' *Psychological Medicine* 23, 143-154
- Breger, L. (2003). **인간발달의 통합적 이해**(홍강의, 이영식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원출판년도 1974)
- Brisch, K.H. (2003). **애착장애의 치료 - 이론에서 실제까지**(장휘숙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출판년도 1995)

출판년도 1999)

- Cheong, E. (2002). "Schwerstbehinderte" Menschen verstehen. Zur Psychologie und Paedagogik geistig behinderter blindtaubstummer Menschen. Butzbach-Griedel: Afra-Verl.
- Diethelm, K. (1991). Mutter-Kind-Interaktion. Entwicklung von Kontrollueberzeugungen [Mother-child interaction. Development of control beliefs]. Bern, Switzerland: Huber.
- Earl, W. L. (1987). Creativity and self-trust. A field study. *Adolescence*, 22, 419-432.
- Feuser, G. (2000). Geistige Behinderung im Widerspruch. In: Greving, H. & Groeschke, D. (Hrsg.): *Geistige Behinderung - Reflexionen zu einem Phantom*. Bad Heilbrunn: Klinkhard, 141-166.
- Flammer, A. (2004). 통제신념에 대한 발달적 분석; Bandura, A. 편저 (2004).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기효능감**(윤운성 외 역). 서울: 학지사, 103-140.(원출판년도 1995)
- Foucault, M. (1991). **광기의 역사**(김부용 역). 서울: 인간사랑.(원출판년도 1961)
- Foucault, M. (2005). **광기의 역사**(이규현 역). 서울: 나남출판.(원출판년도 1972)
- Gabbard, G. (1992). 'Psychodynamic psychiatry in the "decade of the brai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9, 991-998.
- Harris, T. (1992). 'Some reflections on the process of social support and the nature of unsupportive behaviour.' In H.O.F. Veiel and V. Bauman (eds)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Washington: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 Harlow, H.H. (1971). *Learning to love*. San Francisco: Albion Press.
- Hayden, T. (2005). **한 아이 1**(이희재 역). 서울: 아람드림.(원출판년도 1979)
- Hayden, T. (2005). **한 아이 2**(이수정 역). 서울: 아람드림.(원출판년도 1979)
- Jantzen, W. (1979). *Grundriss einer allgemeinen Psychopathologie und Psychotherapie*. Koeln: Pahl-Rugenstein.
- Jantzen, W. (1992). *Interdisziplinaritaet und das Problem der "allgemeinen Wissenschaft"(Vygotskij)*. Ueberarbeiteter Tonbandmitschnitt eines Vortrages bei der 32. Kuehlungsborner Arbeitstagung 1992 (Manuskript).
- Jantzen, W. (1998a). Aspekte struktureller Gewalt im Leben geistig behinderter Menschen. Versuchen, dem Schweigen eine Stimme zu geben. In: Seidel, M; Hennicke, K.(Hrsg.): *Gewalt im Leben von Menschen mit geistiger Behinderung*. Reutlingen: Diakonie 1999, 45-55.
- Janzen, W. (1998b). Humane Anerkennung von Behinderung und philosophisches System. In: Jantzen, W. (1998). *Die Zeit ist aus den Fugen*. Marburg: BdWi., 55-70.
- Janzen, W. (1998c). A down's is a person! Zum Verhaeltnis von Allgemeinen und Differenz in Philosophie und Paedagogik. In: Jantzen, W. (1998). *Die Zeit ist aus den Fugen*. Marburg: BdWi., 83-98.
- Jantzen, W. (1998d). Recht auf Leben - Recht auf Bildung: Zur Situation der Behindertenpaedagogik in der Postmoderne. In: Jantzen, W. (1998). *Die Zeit ist aus den Fugen*. Marburg: BdWi., 157-178.
- Jantzen, W. (1999a). Geistige Behinderung und Menschenrechte - Bemerkungen zum Begriff der menschlichen Natur. *Marxistische Blaetter* 37(6), 27-31.
- Jantzen, W. (1999b). "Transempirische Raeume - Sinn und Bedeutung in Lebenszusammenhaengen." In: Frischbeck, H.J. (Hrsg.). *Leben im Gefahr? Von der Erkenntnis des Lebens zu einer neuen Ethik bei Lebendigen*. Neukirchen-Vluy (Neukirchener Verlag), 123-144.
- Jantzen, W. (2000). Geistige Behinderung ist kein Phantom - Ueber die soziale Wirklichkeit einer naturalisierten Tatsache. In: Greving, H. & Groeschke, D. (Hrsg.): *Geistige*

- Behinderung - Reflexionen zu einem Phantom*. Bad Heilbrunn: Klinkhard, 167-179.
- Jantzen, W. (2005). "Es kommt darauf an, sich zu veraendern..." *Zur Methodologie und Praxis rehistorisierender Diagnostik und Intervention*. Giessen: Psychosozial-Verlag.
- Jantzen, W. & Lanwer-Koppelin, W. (1996). *Diagnostik als Rehistorisierung*. Berlin: Marhold.
- Jun, G. (2005). **다르게 보는 아이들**(이수영 역). 서울: 한울림.(원출판년도 1994)
- Holmes, J. (2005). **존 볼비와 애착이론**(이경숙 역). 서울: 학지사.(원출판년도 1993)
- LeDoux, J. (2005). **시냅스와 자아**(강봉균 역). 서울: 소소.(원출판년도 2002)
- Lurija, A.R. (1995). *Das Gehirn in Aktion*. Reinbek: Rowohlt.
- Marris, P. (1991). 'The social construction of uncertainty' in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C. M. Parkas, J. Stevenson-Hinde and P. Marris (eds.). London: Routledge,
- Marrone, M. 지음 (2005). **애착이론과 심리치료**(이민희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출판년도 1998)
- McGee J.J. et. al. (2003). **은화한 교수**(박승희 역). 서울: 교육과학사.(원출판년도 1987)
- Meyer, D. (1998). "*Geistige Behinderung*" und Dissoziation - *Aspekte einer Rehistorisierung* -. Diplomarbeit in Behindertenpaedagogik. Universitaet Bremen
- Miller, A. (2005). **사랑의 매는 없다**(신홍민 역). 서울: 양철북.(원출판년도 2001)
- Oettingen. G. (2004).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본 자기효능감; Bandura, A. 편저(2004).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기효능감**(윤운성 외 역). 서울: 학지사, 177-208.(원출판년도 1995)
- Oliver, M. (2006). **장애화의 정치**(윤삼호 역). 대구: 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원출판년도 1990)
- Paz, O. (1981). *Der menschenfreundliche Menschenfresser*. Frankfurt(M.): Suhrkamp.
- Pedder, J. (1982). 'Failure to mourn and melancholia',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1, 329-337.
- Peterfreund, E. (1983). *the Process of Psychoanalytic Therapy*. Hillsdale, NJ: The Analytic Press(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ost, R. (1992). 'Transduction of psychosocial stress into the neurobiology of recurrent affective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9, 999-1010.
- Rutter, M. (1981). *Maternal Deprivation Reassessed*, 2nd edn, London: Penguin.
- Schneewind, K.A. (2004). 가족과정이 통제신념에 미치는 영향; Bandura, A. 편저 (2004).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기효능감**(윤운성 외 역). 서울: 학지사, 141-176.(원출판년도 1995)
- Scholz, A. & Rothenberger, A. (2006). **내 아이에게 틱과 강박증이 있대요!**(박진곤 역). 서울: 부키.(원출판년도 2002)
- Sinason, V. (2000). *Geistige Behinderung und die Grundlagen menschlichen Seins*. Neuwied: Kriptel; Berlin: Hermann Luchterhand.
- Sroufe, A. (1979). 'The coherence of individu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4: 834-841.
- Stern, D.N. (1977). *The First Relationship*. Cambridge, MA: Havard University Press.
- Van de Kolk, B. (1987). *Psychological Trauma*,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Waddington, C.H. (1957). *The Strategies of the Genes*. London: Allen and Unwin.
- Winnicott, D. (1965). *The Maturation Process and the Facilitating Environment*, London: Hogarth.

The Importance of Anti-segregated-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Relational Efficacy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Cheong, Eun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A human life can be progressed and achieved within continuous social relationships. In this sense social skills including linguistic skill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onstruction of social relations, are crucial in education in general and more so in that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in particular. This research seeks to consider relational efficacy in the context of 'attachment theory' as 'spatial theory'. It also discusses relational efficacy on the conceptual basis of 'enjoyment(jouissance)' which E. Levinas elaborated in his own theory.

As a consequence, this research suggests that relational efficacy grows on the ground of the development of attachment, and that the progress of relational efficacy crucially affects individual feeling of happiness. It found that passiveness of people(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develops not from the problems caused by impairment itself but from the experiences of pathological relations which the people(children) have been supposed to construct in the inter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in society.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note that anti-segregated-education(inclusion) is necessary for developing relational efficacy both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and normal children. It is also important to take the viewpoint that in the space of integrated education the object in a mutual relationship(the person with whom to construct relationship) should be considered as the object per se which is defined on Levinas' perspective of 'enjoyment' as essentially mutual.

Key Words: Relational Efficacy, Spatial Theory, Enjoyment, Child Abuse, Anti-segregated-education

논문 접수: 2006. 11. 7 심사 시작: 2006. 11. 17 게재 확정: 2006. 12. 27